

3월 25일만 되면 야구 시즌이 “진짜 시작됐구나” 싶어지는 느낌이 있죠. 특히 한국에서 MLB를 보려면 시간대가 뺄 세서, 그냥 대충 검색해서 들어가면 놓치기 쉽고, 반대로 제대로 확인해두면 개막전부터 흐름을 타기 좋습니다. 이번 글은 **MLB 개막전이 시작되는 3월 25일 이후 일정 흐름**이랑,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 사이트**에서 해매지 않게 중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볼게요.

참고로 한국은 KST(UTC+9)를 연중 사용하고 서머타임이 없어요. MLB 현지(미국) 시간과 비교하면 보통 한국 시간이 훨씬 늦게 흘러서, 개막 주간에는 새벽이나 오전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큼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 시간”을 날짜 단위로만 보는 분들이 자주 틀려요. 분 단위까지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3월 25일, MLB 오프닝 나이트부터 시즌 리듬 잡기

MLB 정규시즌은 **3월 25일 오프닝 나이트로 시작**했어요. 2026년 기준 오프닝 나이트는 **양키스 vs 자이언츠**로 안내됐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당연히 현지보다 늦은 시간대에 편성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게임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정확한 **한국 시간 시작 시각**을 확인하는 겁니다.

MLB는 개막부터 일정이 촘촘해요. 2026년은 **30개 구단이 3월 25일~28일 사이에 개막전**을 치르는 구조로 공지돼 있었습니다. 즉, 25일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뭐 보지?”가 계속 생겨요.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오프닝 나이트만 보면 됨”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날부터 놓치는 경우. 둘째는 반대로 여러 경기를 한 번에 띄워보려다가, 시작 시간이 제각각이라 방송 전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예요. 개막 주간은 감각보다 확인이 이득입니다.

MLB 일정과 ‘어디서 보나’는 공식 페이지로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함

한국에서 mlb중계를 찾아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방송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핵심이 되잖아요. 이때 가장 덜 흔들리는 방법은 MLB가 안내하는 **공식 일정 페이지**와 **MLB.com/watch**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먼저 보는 겁니다.



MLB는 공식적으로 시즌 일정에서 날짜별 경기와 함께 “Where to watch” 같은 시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해요. 그리고 [야구중계사이트](#) MLB.com/watch 쪽에서는 **경기별 일정, 예상 선발, 중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발이 누구인지, 중계가 어떤 방식인지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보는 흐름이 가능하다는 거죠.

개막전 시즌에는 특히 방송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어제 봤던 링크 그대로면 되겠지” 같은 판단은 위험해요. 야구는 예고편이 아니라 실시간 경기라서, 그날의 편성과 중계 경로는 당일 확인이 이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언제 보지’를 잡는 현실적인 방법

한국은 MLB 현지보다 시간이 늦어서, 경기 시작 시간이 대중 감으로 잡히면 놓치기 쉬워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먼저 MLB 공식 일정에서 경기 날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가 있는 날짜 기준으로 몇 시부터인지”를 한국 시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미국 현지 시간대가 바뀌는 일이 없나(서머타임) 같은 변수인데, 한국은 서머타임이 없으니까 그 부담은 조금 줄어 들어요. 결국 체감상 “항상 늦게 시작한다”는 감각만 믿지 말고, 공식 시간표를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개막 주간에는 경기들이 쭉 이어지니까, 스케줄을 한 번에 외우려 하면 오히려 망해요. “내가 관심 있는 팀 경기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는 확실히 붙일 때만 따라가면 됩니다. 특히 개막 주간에는 첫 주의 선발 라인업과 투수 컨디션이 관심 포인트가 되는데, MLB.com/watch에서 경기별 예상 선발 정보를 안내한다는 점이 여기서 도움이 됩니다.

야구중계사이트 찾기 전에, 확인해야 할 정보는 생각보다 단순

여기서 말하는 “야구중계사이트”는 꼭 특정 사이트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결국 들어가는 검색 루트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다 보면 화면이 화려한 곳도 있고, 무료라고 적어둔 곳도 있고, 로그인 같은 절차가 있는 곳도 있죠. 그런데 개막전 시즌에는 그런 선택지보다 먼저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흐름은 “영상 플랫폼을 고르기 전에, 경기 자체의 정보를 먼저 확정”하는 겁니다. 경기 확정이 되면 중계 경로는 그 다음 문제로 정리돼요.

아래는 중계 확인할 때 제가 실제로 쓰는 체크 감각이에요.

- MLB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내가 볼 경기의 날짜와 경기 자체를 먼저 확정하기
- MLB.com/watch에서 해당 경기의 중계 정보와 예상 선발이 안내되는지 확인하기
- 한국 시간 기준 시작 시각을 다시 확인해서 알람이나 시청 가능 시간을 맞추기
- 실제 시청 전, 같은 경기의 중계 방식이 당일 기준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짧게 재확인하기

이렇게 하면 “어? 이 경기 오늘 아니었나?” 같은 황당한 상황이 확 줄어요. 개막 주간에는 특히 경기 수가 많아서 이런 실수가 더 자주 나옵니다.

개막 주간에 기대할 만한 건 ‘경기 수’와 ‘리듬’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30개 구단이 개막전을 치른다는 공지는, 곧바로 “볼 거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MLB는 시즌 내내 일정이 촘촘하고, 정규시즌은 **162경기 체제**로 운영된다고 공식 규정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mlb중계** 개막 주간은 그냥 시작이 아니라, 이후 162경기의 긴 레이스에 들어가기 위한 엔트리 점검 기간에 가까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개막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달로 이어지는 흐름을 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선발 투수 교체 주기, 불펜 사용 패턴, 타순 변화 같은 게 “첫 경기 하나”로 결정되진 않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잡는 신호는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개막전부터 바로 체력을 관리하는 팀과, 시즌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팀의 성향 차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려면 결국 중계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그 접근성은 결국 “일정과 시청처를 먼저 잡는 능력”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공식 일정과 mlb중계를 확인하는 루트가 중요해져요.

KBO도 함께 챙기는 사람이라면, 날짜 감각을 분리해두기

블로그 제목이 MLB 개막전(3월 25일~)에 초점이 있지만, 한국 야구 팬들은 보통 KBO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날짜 감각을 섞으면 진짜로 헷갈려요.

KBO는 2026년 기준 **3월 28일(토)** 개막했고, 개막전은 상위 5개 팀 홈구장에서 열렸다고 KBO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MLB는 25일~28일 사이에 개막전이 몰리고, KBO는 28일에 시작합니다. 결국 3월 28일은 MLB와 KBO가 같이 움직이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오늘은 MLB만 볼지, KBO도 같이 볼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중계를 두 개 동시에 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는 경기의 시작 시간을 놓치면 감상이 통째로 끊겨요. 개막 시즌은 집중력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8일에는 한 쪽을 메인으로, 다른 쪽은 결과 위주로 가져가는 방식이 덜 피곤했습니다.

중계 타이밍이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짧은 선택 기준

개막 주간은 사람들이 “어느 경기부터 시작할지”를 많이 고민해요. 여기에는 취향도 있고, 일정 제약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기준으로 정리해봤어요.

투수가 관심이면, MLB.com/watch에서 경기별 예상 선발을 확인하고 그 경기를 우선순위로 두는 쪽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타선이나 팀 경기력이 궁금하면, 내 관심 팀이 개막전이 언제 끼어있는지부터 찾는 게 편해요. 그리고 진짜 실용적으로는,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대에 경기 시작이 걸리는지부터 체크합니다. 개막 주간에는 일정이 촘촘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대에 맞는 경기로 고르면 실패 확률이 낮아요.

이 과정에서 야구중계사이트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 확정, 시청처 확인, 시간 확인” 이 세 단계만 잡히면 나머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개막전 이후, 포스트시즌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도 참고하면 좋음

한 번에 다 보기는 무리지만, 시즌 전체를 감으로라도 잡고 싶다면 포스트시즌 일정도 가능해볼 만해요. MLB 포스트시즌은 **10월 2026년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공지돼 있었고,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4개 시리즈가 화-목에 진행되는 구조**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걸 왜 개막 주간에 굳이 말하냐면, 개막을 보는 이유가 “오늘 경기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즌이 길다는 걸 알고 보면, 개막전에서 보이는 사소한 단서들, 예를 들면 타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선발이 몇 이닝을 목표로 던지는지 같은 것들이 다음 달 경기에서도 연결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막전 중계를 볼 때 메모를 길게 하진 않지만, 팀별로 “초반에 뭘 잘하는지” 정도만 기억해두는 편이에요. 시즌 내내 그 기억이 떠올라서, 결국 162경기 체제의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3월 25일~28일 루트만 잘 잡아도 반은 성공

정리하면 이 시기에는 선택지가 많은 대신, 시작부터 시간대를 잘 잡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MLB는 3월 25일 오프닝 나이트(양키스-자이언츠)로 시작하고, 30개 구단이 25일~28일 사이에 개막전을 치르는 구조예요. 한국은 KST라서 현지보다 시간이 늦게 들어오니, 시청 가능한 시작 시각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mlb중계나 야구중계사이트를 찾더라도, 출발점은 MLB 공식 일정과 MLB.com/watch 안내로 잡아두면 시행착오가 확 줄어듭니다. 경기별 일정, 예상 선발, 중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개막 주간은 “한 경기만 보자”라고 마음먹기보다, 내가 가능한 시간대에서 좋은 경기 하나를 먼저 고르고, 다음 경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식이 제일 편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먹으려 하면 오히려 지칩니다. 개막전은 길게 가는 시즌의 첫 단추니까요.